A Hero's Song, Op. 111

- □□

정보

Antonín Dvořák: *A Hero’s Song*, Op. 111

- 작곡가 : Antonín Dvořák (1841–1904)
- 작품명 : *A Hero’s Song*, Op. 111 (체코어 *Píseň bohatýrská*, 독일어 *Heldenlied*)
- 장르 : 한 악장 교향시
- 작곡 시기 : 1897년 8월 4일 –10월 25일
- 초연 : 1898년 12월 4일 , 빈 , Vienna Philharmonic, Gustav Mahler 지휘
- **IMSLP:** https://imslp.org/wiki/A_Hero%27s_Song%2C_Op.111_(Dvo%C5%99%C3%A1k,_Anton%C3%ADn)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_Hero%27s_Song

Antonín Dvořák의 *A Hero’s Song*, Op. 111은 특정 신화나 소설의 줄거리를 따라가는 대신 , 한 인물이 결의와 고통을 지나 희망과 승리에 이르는 과정을 한 악장에 압축한 교향시다 . 공식 카탈로그는 작품의 주조를 B♭단조로 기록하지만 , 음악은 D♭장조와 A장조 , A단조를 거쳐 마지막 B♭장조로 나아간다 . 드보르자크가 남긴 설명과 악보의 조성 ·동기 변화가 함께 ‘영웅 ’의 모습을 만들며 , 전곡은 약 21–22분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된다 .

개요

드보르자크는 전년도 네 교향시에서 카렐 야로미르 에르벤의 민담을 사용했지만 , 이 곡에서는 특정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삼지 않았다 . 처음 적은 제목은 *A Hero’s Life*였고 , 제자 비테슬라프 노바크에게 피아노로 들려준 뒤 현재의 제목이 자리 잡았다 . 체코어 *bohatýr*는 전쟁 영웅만이 아니라 음유시인이나 정신적 인물까지 가리킬 수 있어 , 제목을 군사적 승리의 이야기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

드보르자크는 로베르트 히르슈펠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첫 주제를 에너지와 결의 , 두 번째 주제를 고통과 탄식 , D♭장조를 희망과 위안으로 설명했다 . 이어지는 E장조 구간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 기쁨으로 , 마지막 폭풍 뒤의 B♭장조는 사상의 승리로 제시된다 . 이 편지는 고정된 장면 줄거리보다 음악이 나아갈 정서적 방향을 알려 준다 .

출판 정보와 자료

1899년 베를린의 N. Simrock이 Op. 111, plate 11195로 초판을 냈다. 초판 악보에는 독일어 제목 *Heldenlied*가 함께 쓰였고, 체코어 원제와 영어 번역이 병용된다. 오늘날에는 *A Hero’s Song*, *Heroic Song*, *A Hero’s Life*가 같은 작품을 가리키는 표기로 나타난다.

드보르자크가 율리우스 자이어에게 이 구상을 시로 옮겨 달라고 부탁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만, 자이어의 텍스트가 최종 악보나 초연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곡은 세부적인 사건과 등장인물이 정해진 표제음악보다, 작곡가의 정서적 개요와 관현악의 흐름을 함께 읽는 교향시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체로 21–22분이다. Antonín Dvořák 공식 작품 페이지는 약 22분, Bärenreiter는 약 21분으로 제시한다. Andris Nelsons와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의 2012년 실황 녹음은 20분 13초다. 템포와 녹음 편집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한 악장으로 이어지는 짧은 관현악 작품이라는 성격은 같다.

편성

- 목관 :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 금관 :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 타악기 : 팀파니,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 현악 : 현악 5부

2관 편성에 네 대의 호른과 세 대의 트롬본, 튜바를 더한 규모다. 큰북과 심벌즈는 마지막 상승에서 관현악의 무게를 키우고, 클라리넷과 현악은 중간의 느리고 민속적인 선율을 부드럽게 잇는다. 작품 전체를 계속 큰 소리로 밀어붙이기보다, 조용한 목관과 현의 구간 뒤에 금관과 타악기의 폭발을 배치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악장별 구성

드보르자크 공식 해설은 이 곡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한 악장 안에 전통적인 네 악장 교향곡의 기능을 압축했다고 설명한다. Hugh Macdonald는 마디 127, 303, 441, 591 부근의 빠르기와 조성 변화를 기준으로 이 흐름을 더 구체화한다.

I. `Allegro con fuoco`

처음의 `Allegro con fuoco`는 B♭단조를 중심으로 결의에 찬 동기를 제시한다. 금관과 현이 짧고 힘찬 음형을 주고받으며, 목관은 그 사이에 선율의 윤곽을 보탠다. 첫 주제는 뒤의 느린 부분과 종결에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곡 전체를 묶는 출발점이 된다.

II. `Poco adagio, lamentoso`

마디 127 부근에서 음악은 D♭장조의 느린 구간으로 가라앉는다 . 제목의 영웅이 승리를 향해 곧장 달려가는 모습보다, 상실과 탄식 속에서 멈추는 시간이 먼저 나온다. 긴 현의 선율과 낮은 목관의 응답이 이어지고, 금관은 절제된 화음으로 공간을 넓힌다. Macdonald는 이 부분을 베토벤 영웅 교향곡의 장송 행진과 연상시킬 가능성을 열어 두지만, 특정 장면의 인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III. 춤과 민속적 활력

마디 303 부근에서는 A장조의 느슨하고 춤추는 듯한 구간이 시작된다. 클라리넷과 목관이 부드러운 선율을 내놓고 현악이 가벼운 리듬을 받치면서, 앞의 비극적 정서가 새로운 활력으로 바뀐다. 민속적인 음형은 드보르자크의 다른 관현악 작품을 떠올리게 하지만, 특정 민요를 그대로 인용한 곡은 아니다.

IV. 행진과 최종 승리

마디 441 부근에서 A단조의 보다 활발한 행진풍 구간이 나타난다. 리듬이 촘촘해지고 금관의 신호가
반복되면서 , 음악은 마지막 B♭장조로 향한다. 마디 591 부근부터는 처음의 동기가 넓은 화음과 타악기를
동반해 돌아오며, 폭풍을 지나 사상의 승리에 이르는 결말을 만든다. 이 종결은 특정 영웅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이라기보다 , 앞서 나온 결의와 탄식, 희망의 재료가 한꺼번에 밝아지는 관현악적 귀결이다.

제목과 ‘영웅 ’의 의미
드보르자크가 히르슈펠트에게 설명한 영웅은 군대의 지휘관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예술가에 가깝다. 첫 주제의 힘과 두 번째 주제의 고통, D♭장조와 E장조의 희망이 차례로 놓이는 이유도 무용담의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 사람이 시련을 견디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추상적인 방향이 관현악의 조성 이동과 동기 회상으로 표현된다.

이 점에서 A Hero’s Song은 드보르자크의 마지막 교향시이면서 마지막 순수 기악 관현악 작품이기도 하다. 전년도 교향시들의 구체적인 민담과 달리, 이 곡은 이야기를 걷어 내고 후기 드보르자크가 가진 관현악 색과 조성 설계를 전면에 내세운다. 작품을 ‘전쟁 영웅의 음악 ’으로 좁히면 느린 중간부와 조용한 민속적 구간이
맡은 역할을 놓치게 된다.

초연과 수용
초연은 1898년 12월 4일 빈에서 Gustav Mahler가 Vienna Philharmonic을 지휘해 열었다. 드보르자크는
리허설과 공연에 참석했고, 초연 뒤 1899년 1월 프라하 공연을 비롯해 런던, 함부르크, 베를린, 보스턴 등
여러 도시에서 연주가 이어졌다. 부다페스트에서는 작곡가가 직접 지휘해 청중과 평론가의 호응을 받았다.

초기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지만 , 작품은 장기적으로 정규 교향악 시즌에 자주 남지 못했다. Andrew Clements 는 이 곡이 드보르자크의 교향시 가운데 가장 덜 연주되는 편이라고 지적했고, Michael Cookson은 Nelsons

의 실황에서 곡의 에너지와 폭이 새롭게 들린다고 평가했다. 초연의 성공과 후대 공연 빈도는 서로 다른 경로를 걸었다.

녹음과 해석
Neeme Järvi의 Chandos 녹음은 조용하고 민속적인 중간부를 살리며, 곡을 큰 폭발만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 Jiří Bělohlávek의 Warner Classics 음반은 드보르자크의 다른 후기 관현악 작품과 나란히 배치되어 이 곡의 위치를 살필 수 있게 한다. Andris Nelsons의 BR Klassik 실황은 짧은 시간 안에 넓은 호흡과 강한 금관을
함께 확보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큰 음량에서는 녹음 공간이 다소 혼잡하게 들린다는 지적도 있다.

Theodore Kuchar의 Brilliant Classics 전집은 빠르고 선형적인 진행으로 작품을 들려준다. 어느 녹음이든
느린 D♭장조 구간과 마지막 B♭장조의 귀환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 그리고 첫 동기가 종결에서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를 들으면 지휘자의 해석 차이가 선명해진다 .

주요 레코딩

Neeme Järvi /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Chandos, 1988): 구체적인 줄거리
없이도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흐름을 살리며, 느리고 민속적인 중간부를 섬세하게 다룬다.
Jiří Bělohlávek / BBC Symphony Orchestra (Warner Classics, 2006): 드보르자크 후기 교향시와 함께 수록되어 작품의 관현악 색채와 수용 위치를 비교하기 좋다.
Andris Nelsons /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 (BR Klassik, 2013): 2012년 실황을 바탕으로 한 녹음으로, 20분 13초 안에 강한 에너지와 폭넓은 호흡을 결합한다.
Theodore Kuchar / Janáček Philharmonic Orchestra (Brilliant Classics, 2004):
빠르고 선형적인 진행으로 한 악장 안의 네 구간을 분명히 나눈다.

주요 자료

Antonín Dvořák 공식 작품 페이지: 작곡 ·초연 연대, 제목, 조성, 편성, 드보르자크가 설명한 영웅의
정서적 흐름.
Antonín Dvořák 공식 녹음 목록: 주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작품별 디스코그래피 .

Repertoire Explorer, Hugh Macdonald 서문: 마디별 조성 변화와 한 악장 안의 교향곡적 설계.

Bärenreiter Praha: 초판 계열, 약 21분의 시간과 관현악 편성.

IMSLP, A Hero’s Song: Op. 111/B.199, 1899년 Simrock 초판과 공개 악보.

The Guardian, Andris Nelsons: 작품의 공연 빈도와 Nelsons 실황의 생동감.

MusicWeb International, Nelsons: 20분 13초 실황 시간, 관현악 에너지와 녹음 공간에 대한 평가.

MusicWeb International, Järvi: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는 작품의 정서 흐름과 Järvi의 해석.

Gramophone, Dvořák Symphonic Poems: 드보르자크 교향시 전집의 녹음 비교.